

2020 제2차 정기이사회 회 의 록

「충남연구원」 2020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① 회 의 개 요

1. 일 시 : 2020. 12. 23(수), 14:00~16:00
2.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3. 참 석 : 총 10명(이사 9, 감사 1)
4. 부의안건 상정 및 심의 의결
 -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 2021년 사업계획(안)
 - 2021년 예산(안)
 -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5. 진행흐름



② 회 의 결 과

□ 간사 안내

- 오늘 이사회는 이사장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연구원 정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이사장님이 지명하시어 “김수민” 이사께서 이사장을 대신해서 이사회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 “김수민” 이사님께서서는 이사장 좌석에 앉으시어 이사회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이사 이사장 석으로 이동]

□ 개 회(간사)

[국민의례, 성원보고]

□ 개회선언(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2020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인사

- 지금부터 2020 제2차 정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홍성주 이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주 이사〉

- 처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1년 3개월 동안 과기정통부 장관님 정책 전문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여기 오신 지금 처음 뵙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 장〉

- 우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이사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사실 요즘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공군에서 스텔스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인지 뭔지를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딸이 곧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자가격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 또 연세가 많으신 노모가 같이 계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

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첩첩이 쌓이는데요.

- 아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께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조속히 국가적으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안건 심의의결

〈의 장〉

- 부의안건 심의에 앞서, 본 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의록 기명 이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실 이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은 이사〉

- 박종찬 이사님을 추천합니다.

〈박종찬 이사〉

- 정세은 이사님을 추천합니다.

〈의 장〉

- 서로 주고받고 하셔서 두 분의 이사님이 추천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이사님 모두가 동의해 주셨으므로, 박종찬 이사님과 류주현 이사님을
2020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기명이사로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두 분 이사님께서서는 회의록 정리에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종찬 이사, 정세은 이사〉

○ 알겠습니다.

〈의 장〉

- 다음은, 간사께서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할 부의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오늘 심의의결 하실 안건은
- 심의 의결건으로
 -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 2021년 사업계획(안)
 - 2021년 예산(안)
 -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의 장〉

-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부의된 안건을 유사 안건별로 묶어 일괄상정한 후, 안건 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말씀 바랍니다.

〈원 장〉

- 이사님들에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춘섭 과장〉

○ 자료를 사전 배포하였습니다.

〈의 장〉

○ 사전배부, 배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주현 이사〉

○ 일반회계추경에서 공주시 세계유산 탐방거점이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고 자본적 수입 확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이렇게 나뉘어서 되어 있는지 조금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간 사〉

○ 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성 연구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탁 사업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본적 수입이랑 보조금, 이월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확대되어서 두 항목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 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정관개정(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으로
 - 제2항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박정배 이사〉

- 지역 정책엑스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 입니까?

〈원 장〉

- 지역 정책엑스포라는 것은 지역 정책에 관한 모든 연구의 업적물들을 전부 집대성, 모아서 그걸 최대한 공유하고 그다음 또 새로운 지역 정책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

- 그래서 원래 올해는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준비한 게 세계지역 정책엑스포였습니다.
- 세계 각 나라에서 주요한 지역 정책들을 우리 충남연구원에 모여서 충남 지역 정책과 같이 교류해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세계의 지역 정책을 모으지 못하고 국내에 있는 지역 정책이나 현안 대표적인 걸 모아서 올해는 대면과 비대면 형식으로 해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시도한 것은 세계적인 지역 정책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서로 자료들을 또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또 그걸 가지고 서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없어서 정책엑스포라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 올해 이행하였고, 만약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원래 구상했던 세계지역 정책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또 우리 도에서 시, 군이나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부스도 만들고 정책을 내놓고 연구 성과를 내놓고 이런 장들을 한 3박 4일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박정배 이사〉

- 의미가 굉장히 좋은데 엑스포란 용어가 적격한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엑스포라고 하면 어떤 규모성이라든지 엑스포, 박람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엑스포라고 하는 건 마치 굉장히 거대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의미나 가치는 굉장히 있는데 엑스포 형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현실에 맞는 타이틀

로 좀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 읽혀지는 건 너무 좋은데 내용은 엑스포 형식은 아닌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충남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문화부지사제도를 만들었다고 지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2030** 비전 선포할 때 충남도에 현 장관이 처음으로 방문을 하여 도지사님 응원하고 가셨던 게 최근에 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연구원의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문화사업이나 문화예술들과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전무한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따라서 지사님께서서는 자의든, 타의든 중요성을 강조해서 문화도지사제도를 뒀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입안을 하는 중요한 기관인 충남연구원에서는 그와 같은 사업이 **2021년도**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누가 보더라도 뭐랄까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혹시 검토가 가능하다면 **2021년** 사업에서 문화산업이랑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설정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도지사님의 어떤 방침이나 문화도지사가 있으면 그분이 뭔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동참하는 건 어떤가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원장〉

- 이사님 지적처럼 우리 연구원에 원래 인력풀들이 문화예술 쪽하고 체육 쪽으로 좀 약했습니다.
- 문화예술 쪽에 등용된 한 분이 있지만 체육 쪽은 없어서 저희들이 초빙을 했습니다.

- 또한 국제다문화와 관련된 분도 이번에 초빙을 했습니다.
-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두 분의 기존에 있는 박사들과 새로 충원된 다문화, 체육 (분야 박사)도 같이해서 이제 문화 체육 (연구를) 했는데,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중장기적인 큰 계획과제입니다.
- 그 안에서 문화예술체육과 관련된 거예요. 문화예술·생태·관광까지 같이 겸비된 전략 과제나 또는 수탁과제나 현안 과제든 수행을 해 왔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 담은 것은 중장기적인 큰 계획인데 그걸 저희들이 문화예술을 딱 내놓고 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있고 문화예술 관련된 다른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 저희들, 특히 충남연구원이 이런 걸 내놓고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다른 연구역이이 겹친 타 공공기관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 체육 예술 이런 측면에서 전략 과제나 수탁과제나 현안 과제나 그런 데서 저희들 생태, 관광, 문화 예술 이런 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도 문화예술체육과 관련된 이런 비전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는 해 봐야겠지만 관련된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 연구용역에 대해서 그런 걸 고려해서 담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박정배 이사〉

- 충분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 그래도 연구기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기관과 특별히 중첩되거나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도 연구기능 차원에서 도와 추진하고 동참하는데 있어서, 타이틀 하나 없는 것이 아쉽고, 그런 차원에서 연구기능을 강조해서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 사〉

- 이사님,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세부 책자에서 92페이지부터 125페이지를 보시면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통상적인 연구 사업들에는 다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그런데 오늘 21년 업무추진계획은 이것들을 전체를 아울러서 한 것이라 이 분야 안에는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부에 꼭지 키워드로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은 이사〉

-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나가 봐야 돼서,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 사실 이렇게 짧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내년 한 해는 계속 코로나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계획에 보면 그런 얘기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주는 위기나 기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피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원장님께서 “중장기적인 그런 경향을 얘기한 거다.”라고 해서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담겨있으리라 믿습니다.

〈의 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종찬 이사〉

- 먼저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신 것 같아서요.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역량이 분산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응과 협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 내년 후반기에는 코로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충격과 향후에 가져올 변화는 상당히 짙은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 그것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내년에 충남도가 집중(해야 할 분야,) 향후에 대비해서 다른 사회 모든 부분에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경제, 사회, 사업 변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충남연구원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충남도의 어떤 산업이나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해가야 할지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를 (추진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보면 제가 1991년도부터 충남도의 산업개발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 당시에 보면 충남도가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수도권 기업들이 밀려오고 하면서 국내의 경남도 울산 중심이었던 사람의 중심이 충남 서북부 쪽으로 집중되면서 충남이 그 이후에 한 20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충남이 갖고 있던 그러한 환경들과 같이 (예를 들어) 수도권규제, 산업 계획의 구조 변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지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산업이나 경제에 대해서 구조 변화를 대응하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도태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 같으면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산업화시키고 있습니다.
- 위기감을 갖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었으면 합니다.

〈의 장〉

-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충남 미래비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네요.

〈원 장〉

- 이사님께 이미 지난번 이사회 때도 보고 드린 것 같이 우리 연구원은 그랜드비전이라는 큰 비전전략체계의 (완성시기를) 내년 6월 말로써 (잡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이제 3년 동안 연구하기 때문에 이미 공공 기관장 회의에서도 내년 6월 말까지는 결과물을, 성과물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 충남 미래정책 100년에 대한 과제들을 내놓으려고, 그랜드비전 정책체계 완성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날까지 그랜드비전 연구추진단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가동 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다른 건 일체 안 하고 이 그랜드비전을 완성해 내는 조직을 구성해서 작동을 시켜서 그 안에서 지금 제안하시고 논의하신 부분들을 다 담을 것입니다.

- 그래서 내년도 3월 달에 이사회 때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 내년 3월 말 이사회 전까지 2차 성과물을 제시하려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 3월 정기 이사회 때는 2차 성과물을 이사님께 제시하고 또 고견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6월 말에 최종 성과물을 완성시켜서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 관점에서 이사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략 과제, 수탁 과제, 현안 과제 또 시군협력과제가 있어서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단기 과제들은 저희들이 기획관실과 협의를 하고 (진행합니다) 지금 전략 과제는 조정협의심의위원회를 1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기 과제, 1년 과제, 정책과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것이라든가, 앞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라든가 이런 또 시군협력과제들을 다양한 정책적 과제들 관련하여는 정책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과제를 선정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내년 3월에 진행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예, 우선 2021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가능하면 짧게, 이제 시간에 차질이 있어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주 이사〉

- 충남연구원이 2020년도 연구하시는 거를 보니까 현원이 155명의 정원이 시고, 과제 530개를 (수행하여) 직원분들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또 한 가지 시군협력과제를 239개나 수행을 하셨더라고요.
-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지역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다,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 그런데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는 시군협력과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입니다.
- 성과를 보면,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늘어난 과제 관련해서 현 안이나 시군협력 부분들을 어디에서 감독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실 것인지 부가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 장〉

- 우선 이사님들께서 우리 연구원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연구한다는 점을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 우리 연구원이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다음에 지방에서는 규모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공신력이라든가 연구업적이 최고입니다.
-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다음이 충남연구원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다른 연구원, 지금 말하는 연구원뿐만 아니라 지방에 다른 연구원도 그렇습니다만 거의 80% 정도 이상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충남연구원은 죄송스럽지만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다른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들은, 출연금을 80%나 받는 연구원들은 중장기적인 연구에 도정과 맞춰 연구고 있기 때문에, 도 정책에 문화 예술적인 부분을 맞춰서 맞춤형 중장기로 집중해서 완성도 퀄리티를 만들어 냅니다.
- 우리연구원은 55%를 벌어야 먹고 삽니다.
- 45% 출연금의 나머지 55%가 수탁을 하든 용역을 하든 벌어야 되거든요.
-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아까 홍 이사님 말씀을 하셨듯이, 장관님 정책보좌관 자문하시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 우리 연구원이 1인당 7.8건의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균입니다. 그러면 거의 8건 정도의 과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들이 벌어들여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공휴일 없이 다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열정페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연구원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도 하지 않고 그런 걸 내색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 이제 홍 이사님께서 제시한 것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거기에 따른 과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예년보다) 조금 줄어든 것이거든요.
-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6월해서 저희들이 수탁이나 용역이 됐을 때 (진

행합니다) 그때 현안 과제 태우게 되면 그 다음에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가 될 것인지 가닥이 잡아서 3월 이사회 때 보고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10월 협력과제에 대해 말했는데 아까 같이 55%를 벌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사업이나 도정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을 수 없습니다.

- 시군도 저희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시군협력과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 그러니까 시군의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연구팀을 만들어서 3명의 박사님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 충남연구원만 그렇습니다.
- 그래서 시군의 출자를 받기 때문에 시군과 정책협력을 통해서 시군의 정책에 관해, 시군이 정책을 하는데 또 우리가 서로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자, 이런 입장에서 시군은 정책협력과제를 다른 광역시도 연구원과 달리 저희들만 충남연구원이 특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시군협력과제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군 쪽에서 군수님이나 시장님들이 상당히 우리 연구원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고맙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정말 저도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저도 좀 더 해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 장〉

- 도 관계자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혹시 더 있으십니까?

〈류주현 이사〉

- 정책엑스포를 2021에 하게 되면 어떻게 금년에 계획보다 간소하게 했던 것에 대한 보강을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원 장〉

- 그것이 원래는 3일 (추진)하고 하루 차에는 비대면, 이틀 차에는 대면을 하고 그 다음 3일 차는 우리 전 직원들이 합동으로 하면서 정책에 대한 것을 리뷰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지막 날 코로나로 50인 이상 모임 제한을 두어서, 우리연구원이 160명 정도 되어 못 모이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그 3일 차 행사를 아직 못하고 조금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아쉽고요.
- 두 번째는 저희들이 외국의 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특히 중국 기관과의 MOU 들어가는 것과 함께 중국의 지역 정책하고 우리 지역 정책하고 같이 내놓고 부스를 설치하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직 못했습니다.
- 아까 같이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가 아니라 국내 온라인으로만 멈췄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아쉬움이 컸다.
- 그래서 진짜 엑스포라면 현장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정책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병행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직접 당사자가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내년에 세계정책으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그리고 다른 말씀이지만) TF공간 관련하여 우리연구원 임원들만 하잖아요. 이사님들도 직접 참여하듯이 추진위원회, 정책형성추진위원회도 희망하신 이사님들이 참여하셔서 아이디어도 같이 만들어가고 그런 것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찬 이사〉

- 그것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나 산업의 구조변화나 이런 것을 볼 때 중국도 프로그램이 많지만 일본 쪽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정책엑스포 관련해서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숙지를 하셔서 일본의 정책도 참고를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 장〉

- 작년에 준비할 때 일본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일본 수출제재조치가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작년에 접촉을 못 했습니다.
- 중국하고는 사전에 접촉해서 이런 과제와 이렇게 하자라는 게 서로 다 협의가 됐는데 일본은 차단되어 못했습니다.
- 올해는 좀 한일관계가 풀려서 같이 협의해서 당연히 일본도 참여를 하고 동남아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영국 각 대표지역으로 해서 원래는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 다 포함해서 준비하도록 하고 또 마침 박종찬 이사님이나 류주현 이사님 참석하셔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주현 이사〉

- 그런데 방법적인 차원에서 플랜을 하나 더 해가지고, 이게 대면으로 하려다가 비대면으로 하니까 세미나 식처럼 됐는데, 아예 플랜을 비대면인 플랜B를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솔직히 이번에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포럼이나 이런 것이 유튜브 실시간 중계나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진짜 여러 나라의 석학들이 더 많이 참여한 듯하고 솔직히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던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아예 그런 형식으로도 투트랙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

- 한 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경제사회연구원, 과학기술원하고 같이 K-뉴딜로 해서 인터넷 중계도 했는데, 그 아이디어는 우리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 세계지역 정책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하여 그것과 관련해서 소개를 했었고 거기에 아이디어가 되어 갔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은 비대면이 되어 하는 건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못 했어요.
-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예산 문제도 있지만, 준비하면서 외국하고 우리가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시 지방연구원은 약하더라고요.
- 국책 연구원들은 본인들이 출신, 학위 하는 대학과 네트워크도 있지만 각 싱크탱크 국제적인, 세계적인 네트워크들이 다이렉트로 됩니다.
-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만들려는데 안 되는 게 쉽게 말하면 언어상적으로, 원장부터가 언어가 약합니다. 미국하고 영국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로라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내로라하는 기관의 장들하고 직접 그 자리에서 통신으로 소통을 합니다.

- 언제 하겠다고 하면 만나서 연결하겠다,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대면이 되니까 엄청나게 효력을 발휘하더군요.
- 그런데 우리 충남연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지방공공기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국제교류 협력이라든가 국제통상이나 이런 전문가를 뽑으면서 그런 것들을 인적 네트워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기반을 1명쯤 확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많이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 장〉

- 예, 이제 충분히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사업계획(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하승수 감사>

○ 지난번 임시 이사회 때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그 부분을 걱정하셨습니다.

○ 그때 금액이 이 정도로 예산이 나온 것 같아서 사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 장>

○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재 12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서 설계도에 따라서 맞춰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이사님들 참석하는 의석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사전 준비 기간이 우리 본원에 있는 3개 센터가 이전하는 절차 문제가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기간 중 두세 달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있어야 되는 공간 확보 문제에서 어제 공주시장님 오셔서 3개월 동안 고마 센터에서 잠시 우리가 갔다가 오는 것으로 진행됐는데 구체 적인 건 실무단장을 맡고 있는 오병찬 단장이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찬 센터장〉

- 우리 연구원이 현재 이사회 승인받은 12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리모델링 개선을 준비 중이고요.
- 현재 연구원에 센터를 뺀 전체 인원이 약 11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인원이 현재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인원 에 대해서 리모델링 시에 어떻게 편성을 해서 현재 이 공간 이외의 장소에 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료가 따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저희가 Email이라든가 자료로 발송을 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장〉

- 우선 설계도는 있습니까?

〈오병찬 센터장〉

- 제가 지금 따로 준비를 해서 기타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배 이사〉

- 감사님 질문 중의 하나는 정해진 예산이 있는데 그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잘해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할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성과로 이어지게 하자!” 라는 취지에서 예산이 증감이 됐으면 어느 정도 증감이 됐고, 증감이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 장〉

- 예,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 시작되어 인건비가 올라 가면 알 수 있을 텐데 아직 집행이 설계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때문에 많이 모자란 지 아직 알 수 없고 3월 정도 정기 이사회 때는 다 나올 것 같아요,
- 다만 관련해서 진행하는 상황들은 보고를 드리고 또 나중에 의문 생기는 게 있으면 그때 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 장〉

-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류주현 이사〉

- 유난히 센터 중에 거의 다 푸른색인데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배경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 장〉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증감액을 보면 빨간 것으로로 눈 띄게 보이는데, 사업운영수익이라든가 예금이자수익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지자체 출자출연금이라든가, 여기 42페이지 자료집에 보면 이게 너무 많이 튀어나와 보입니다. 관련해서 구자인 센터장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자인 센터장〉

- 관련 자료를 보니까, 사실 올해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 도하고 협의하면서 원래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유연하게 변경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전반적인 본원의 역할인데 도에서 집행을 하지 말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고 남은 만큼 내년에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출연금 예산을 감액하는 것을 그냥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그래서 사업비가 수입예산에 보면 잉여금이라는 표현되어 있는 이 잉여금이라는 용어가 좀 애매모호한데 이월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들이 사업운영수익인데, 사업운영수익은 저희 센터가 독특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합니다.

- 시군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시군에 연구용역을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게 없어집니다.
- 그래서 그 예산이 전액 감액되기 때문에 수입예산에서는 제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기도 하고 또 올해 전체 근무하는 인원이 6명인데 내년에 또 1명이 줄어들게 되어 5명이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조금 축소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배 이사〉

- 지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연구사업비가 2020년, 2021년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연구과제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이 차이나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 사〉

- 예, 이걸 일반회계고요. 본원에 대한 연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개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서 이월돼서 추진되는 연구도 있고 이번에 신규 연구(도 있습니다)

〈박정배 이사〉

- 그러면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 숫자로만 보면 그러면 내년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걸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이걸 보면 뭘, 사업이 연구과제가 줄어든 것이잖아요, 숫자상으로 보면. 아닌가요?

〈간 사〉

- 저희가 딱 갯수하고 금액 수하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박정배 이사〉

○ 아, 동일하지는 않아요?

〈간 사〉

○ 예. 왜냐하면 이제 적은 규모의 과제 수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 한데 대 규모 과제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 아마 건축재정을 펴면서 시군과 도의 재정이 연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 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원래 우리가 예정된 시간은 많이 초과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논의할 건 해야죠.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예산(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박정배 이사>

○ 46쪽에 보면 제6조에 대한 내용이 뒤에 설명한 겁니까?

<간 사>

○ 예, 맞습니다.

<박정배 이사>

○ 뒤에 세부적으로 설명한 겁니까?

<간 사>

○ 예.

〈박정배 이사〉

○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한 것 같은데 2항의 항목만 삭제한 거죠?

〈간 사〉

○ 세부표는 향후에 이제 상해제도들이 계속 인사관리 쪽에서는 변하니까, 큰 틀만 규정을 바꾸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안입니다.

〈의 장〉

○ 49쪽에 연가일수에 관한 것도 직원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간 사〉

○ 예, 맞습니다.

〈의 장〉

○ 다른 이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주 이사〉

○ 49페이지에 연가계획허가에서 삭제에 개정 46페이지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연가저축제에 따른 누적 연가 활용 기간 연장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 개정 이유하고 개정 내용하고 이게 맞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설

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 사〉

-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적 연가 활용 기간에 연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있는 것들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뒤에 보시면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연 2회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연가저축제를 하면서 3년에서 5년이 저축이 되는 데 그것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더 공유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7일 이상 초과하는 것은 반드시 분할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이 점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홍성주 이사〉

- 그 조항을 삭제하면 이제 누적 연가 활용 기간 연장 허가를 하는 것이니까?

〈간 사〉

- 예, 맞습니다.

〈의 장〉

- 예,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류주현 이사〉

- 47페이지에 ‘직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 너무 문구가 너무 심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 그래서 누가, 그때 아마 지난 회의에서 무슨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위원회의 회의에 따라서 규칙을 정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의 장〉

- 규칙제정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 사〉

- 저희 규칙은 규정규칙심의위원회에서 연구원 보직자 중심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칙개정을 합니다.
- 규정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규칙과 지침에 대해서는 규정규칙심의회에 합니다.

〈원 장〉

- 이 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용에 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임용 기간은 언제, 개시는 언제,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임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고는 언제까지 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세부 지침을 규칙으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이런 내용이라고 해 주셔야 알지, 그냥 문구만 해

서 읽어버렸을 경우에는 배경설명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규정은 이사회 의사사항이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규칙은 자체적으로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사항 지침으로 하고 또 규칙의 것을 세부적으로 나간 것이 지침입니다.
- 그래서 규정, 규칙, 지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사회에서는 정관, 규정 이런 것들은 이사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규정 자체를 놓고, 그 규칙 안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하겠다.”라는 뜻에서 규칙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규정에 대한 규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연구원은 행안부 인사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해야 해서 그 부분들은 규칙에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류주현 이사〉

- 그 규칙으로 하는 그 자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규칙에 대한 어느 위원회에 대한 것인지가 규정에 없습니다.

〈의 장〉

- 그러니까 규칙제정 주체를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원 장〉

- 고려하겠습니다.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개정할 것만 뽑아내 버리니까 이러는데 인사관리규정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자체가 주체든 뭐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이사님 저희들에게 일임해 주시

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사님 말씀에 맞춰서 저희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개정안을 우리 연구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정규칙심의 위원회를 거치지만, 거치기 이전과 이후에 반드시 도 정책기획관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규칙개정심의를 갖게 됩니다.
- 그래서 우리연구원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어떤 법률이나 법규나 지침, 조례에 관한 지침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 장〉

-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 거죠?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의사 일정 제4항 인사관리규정개정(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제 오늘 일괄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이사님들께서 충남연구원 운영 전반, 발전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공간 환경개선계획이라고 하는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찬 센터장〉

- 공간환경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리다가 만 말씀이 현재 이사회의 승인 비용이 12억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12억 7,000만 원 내에서 현재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가 포함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설계비는 약 6.7%, 8,500만 원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공사비는 91.9%, 11억 6,000만 원 정도에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약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 제안서 입찰을 통해서 제일 좋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합산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1월 중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단계별 진행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 1단계로 저희가 설계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 2단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업체를 통해서 질 좋은 설계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2단계 시점에서는 저희가 여기 계신 여러 이사님들께 여러 의견을 듣고 저희 공간개선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3단계에서 공사업체 선정을 통해서 저희가 4단계 공사실시를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저희가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 연구원들이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 현재 투트랙 정도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계획을 진행 중인데 한 가지 방법은 전체 인원이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고마 센터로 이전을 해서

대체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층별로 공사를 하면서 한 층에 있는 공간이 완성이 되면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세부 일정에 보시면 지금부터 지금 입찰공고는 바로 나갈 예정입니다.
- 그 다음에 1월 중에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설계를 진행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3월부터 공고를 시작해서 4월부터 약 7월까지 공사를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 공사는 약 3개월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세부일정들은 설계의 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두 번째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스페이스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업무 공간으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2인실 3개, 연구원 개인 공간 37개 그다음에 소회의실 6개, 대회의실, 현재 있는 대회의실은 준치를 할 예정 중입니다.
- 그 다음 문서 보관실, 자료실 등이 있습니다.
- 휴게공간으로는 여직원 휴게실과 북카페를 예정 중입니다.
- 북카페는 소회의실을 겸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미지를 저희가 대략적인 평면도를 짜봤습니다.
- 1층부터 4층까지 다음 페이지에 이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원 장〉

-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간환경개선추진단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사님들 반드시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해서 기존에 있는 내부 추진단 구성원들과 함께 구성 하에서 입찰부터 시작해서 공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그렇지 않고 이사님들이 참여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사님들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하길 바랍니다.
-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공고라든가 업체선정, 설계, 공사 같은 것하고 공사업체 선정하고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제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명확하게 공간환경개선추진단을 구성하고 우리 이사님들이 참여를 해서 이사님 추천 분들을 외부 전문가로 모셔서 공간환경개선추진단을 구성해서 그 추진단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공유되고 토론되고 논의되면서 진행돼서 리모델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 그래서 오늘 보면 공간환경개선추진단 구성멤버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사님들 별도로 공간환경개선추진단 회의를 소집해서 그 구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한 다음에 위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하에서 원장이 모든 걸 담당해야지, 지금 단장님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안됩니다. 그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찬 센터장〉

-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업체선정에 있어서 이사님 참여가 사실 법적으로 나라장터에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그래서 나라장터에 올려서 평가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선정된 이후에 업체에다 저희가 디자인을 제안하거나 프로그램을 제안

할 수 있지, 그 시점에 이사님들께 공지를 띄워서 의견을 여쭙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원 장〉

○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오병찬 센터장〉

○ 예, 알겠습니다.

〈원 장〉

○ 입찰 과정에서가 아니고 입찰과정 전에 공고를 낼 때 이 프로세스 전부
터 같이 참여해서 같이 과정들을 공유하면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오병찬 센터장〉

○ 예, 알겠습니다.

〈원 장〉

○ 이사님들이 처음부터 참여했으면 합니다

〈오병찬 센터장〉

○ 알겠습니다.

〈의 장〉

○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박정배 이사〉

- 2층에 있는 연구원실 하고 3층, 4층에 있는 연구실 하고 구조가 다른 건가요?

〈원 장〉

- 2층은 공동, 쉽게 말해서 두세 분이 같이 쓸 수 있는 연구실로 되어 있고 3층은 1인 1일 연구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배 이사〉

- 그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원 장〉

- 그 기준은 과제 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과제 팀으로 해서 보면 직급 직계에 따라서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 석사급 이상의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과제를 위해서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업연구 공동 과제 팀이기 때문입니다.

〈박정배 이사〉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찬 이사〉

-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줌등을 활용해서 회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리모델링이 포함되는 있나요?

〈원 장〉

- 그래서 지금 저희는 4층 같은 경우의 비대면, 화상 할 수 있는 메인룸으로하고 층별로 이제 소회의실을 뒤편 그 층에 해당되는 비대면 화상회의를 할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디지털화 하려고 합니다.
- 지금 여기도 안 됐습시다만 다 디지털 작업을 병행해서 모든 걸 1층부터 3층까지, 소회의실, 대회의실 디지털화시켜서 언제든지 비대면 화상회의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제 생각은 조금 오버되지 않을까, 원래 디지털, 비대면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하는 쪽에서 미약합니다.
- 그래서 그게 만약에 키워지게 되면 제가 볼 땐 조금 더 1, 2억 정도는 오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 조금 진행을 해 보고 이사님들 평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배 이사〉

- 거기 관련해서 아까 박종찬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에 제가 의사 발언도 했는데 물론 이제 돈을 많이 쓸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합리적으로 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코로나 시대도 대비하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한 리모델링을 했더니 조금 뭔가 그런 쪽으로 질적 향상으로 연구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임직원들이 느끼게 하는 그런 공간환경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 장〉

- 고맙습니다.

〈의 장〉

-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이제 이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전반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진호 이사〉

-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시도 연구원보다 출연금이 적어서 연구원들이 수탁업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셨는데 충남연구원이 유달리 다른 연구원에 비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 장〉

- 그건 이제 출연금 자체에 대한 도와 시군에서 출자할 수 있는 비용을 많이 내야됩니다. 예산, 확보 문제에서 우리연구원 요청을 하는데 자꾸 “여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모자라다.”라고 합니다.
- 재정상 우리 시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또 높습니다.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 재정 자립도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사인까지 했습니다.
- 다른 시군이 재정에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감히 주장하지 못하는 있습니다.

〈지진호 이사〉

-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도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이 높은 편인데 지나치게 출연금이 적다는 이유는 결국 이런 문제로 연구원들이 계속 혹사를 당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도청이나 아니면 원장님이 시군에서 시장님, 군수님 만나셔서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 장〉

-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자꾸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민감합니다. 제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사님들께 나중에 3월 달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새로 내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시군과 우리의 정책협력으로 연구원 3명 배치하는 이 시스템에서 정례적,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과제, 정책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정례화시키려고 합니다.
- 도와 우리의 정책협력시스템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주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만나서 중요한 정책과제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협력이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면서 출연금을 올려달라는 하는 제 전략이 사실 있습니다.
-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시가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하면서 그것을 발굴해서 나중에 내년에는 “우리가 1년 정도 해 보니까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 좀 올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런 관점에서 도와 시군의 정책협력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도에서

우리연 구원 예산 12억 5,000만 원 깎았습니다, 도의회에서 가서 또 2억 5,000을 깎아버렸습니다.

-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계속해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정성을 보이고 열성을 다하면 도도 그렇고 시군도 출연금을 올려줄거라 생각합니다.
- 한번에 올릴 수 없어서 내년에는 예산은 45%~55%로, 그다음에는 65%로 75%,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출연금을 높여가서 5년 후에는 타 시군처럼 저희 연구원도 80% 될 수 있도록 이사님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도와주십시오. 감사님, 특히 하승수 감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박정배 이사〉

- 아니, 근데 예산이 일단 깎였을 때는 정무적으로 깎인 것도 있지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럴 만한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그 수요예측이라든지 트렌드 조사라든지 아니면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수탁과제를 많이 하는데 이걸 수탁과제로 끝난 다음에 보고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수탁을 준 데에서 원하는 정부의 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천안이면 천안에서 향후 이런 부분을 연구하려고 한다.
- 그래서 그거를 이번 사업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는 것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쉽게 이야기하면 수탁과제를 주는 쪽에 만족도 조사라고나 할까요? 좀 약간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연구원들이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co-work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연구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으면 합니다.

- 그다음 그쪽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향후 과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연구원 자체적으로만 생각해서 우리 이렇게 가겠다가 아니라 도·시·군에서 추구하는 거를 미리 수 예측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준비하면 그런 쪽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문화산업이나 문화 예술 관련해서 윈도우 효과, 앞에 뭔가 좀 보여줘서 ‘아, 충남연구원에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과제로써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세부적으로 다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연구원에서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지금 문화도시라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붐업을 일으켜서 200억 받고 이름만 달리,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충남 천안은 이제 확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공주, 서산밖에 안 하고 있어요.
- 시군에서 또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쪽으로 co-work를 하는 것도 문화 쪽에서 굉장히 이슈화던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부지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연구원에서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래서 윈도우효과차원에서 앞으로 좀 나와야지 이게 뒤에 다 숨어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 장〉

-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22쪽**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있습니다. **22쪽**에 빈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빈칸에 제가 항상 인권개념과 관련된 홍보모델이나 인권강연과 관련된 이 과제를 하나 여기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 그리고 두 번째, **25쪽** 하단에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 체육, 체육 문화 등 문화 체육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과제를 중장기 과제를 트렌드를 만들어서 같이 여기에다 같이 제시를 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 마지막 **26쪽**에 하단하고 **27쪽**에 하단하고는 제가 아직 제안을 안 했습니다만 공공기관장 회의를 별도 협의회로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 그래서 이제 제가 올 연말은 안되고 내년 초에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연구과제를 하나 세워 모든 공공연구기관이 다 참여해서 거기서 공동 연구과제를 키워가지고 가겠다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 아직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공공기관 회의 마치고 취임 되면 내년 **3월**에 이사회 때 그걸 공유를 하고 그것 관련해서 **26쪽**, **27쪽**에 넣어가지고 이사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중장기 비전 전략에 대한 중장기 대응연구추진으로도 하겠습니다.
- 그래서 **Email**로 이사님들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한 부분을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찬 이사〉

-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17쪽 현황을 보면 아까 공간계획에는 2층에 부원장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 장〉

- 아, 원래 부원장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당분간 만들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때 우리가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것 만들지 않습니다)

〈박종찬 이사〉

- 제 생각에는 원장님 스타일이 큰 계획이라든가 대외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시고 사실은 부원장이 있어서 실무적인 연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해서 그런 걸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있었거든요.
- 제가 이제 중소기업부 요즘에 얘기 들어보면 000 장관이 오셔서 굉장히 만족해 하더라고요.
-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일을 다 처리를 해 주니까, 안에서 이제 실국장들이 일을 잘 챙길 수 있어서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 부원장실이 있어서, 제도가 맘에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원 장〉

-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올 때부터 부원장제를 만들고 싶어서. 사실상 제가 여기 간혀 있습니다. 원장이 아니라 제가 농담으로 ‘충남연구원 실무관이 원장이다.’ 원장은 24시간 근무하고요. 나머지 실장님, 우리 연구

원들은 출장 다 다니고 일 다 다니고 저는 못 가고 잡혀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주간 업무일지를 매일 1시간씩 업무일지를 다 공개합니다.
- 윤황 원장이 9시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어떤 일을 했다는 게 매일 시간별로 기록해서 주간업무를 공개합니다.
- 여기 보시면 잡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나, 원장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못하고 부원장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의 규모정도면 부원장이 있어야 됩니다,
-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부원장이 필요하다. 필요한데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님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의 장〉

-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장〉

- 기타 안건으로 저희들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대상기관입니다. 100명이 넘게 되면 재직 인원이, 반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기관이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때도 공공기록물 관리실을 1인당 0.7㎡의 공간을 확보해서 만들라는 게 법에 되어 있고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정원하고, 수사보안 이쪽에 와서 저희들이 점검을 받았습니다
- 지침 받은것이 전산 관리 보안 업무 1명, 그다음에 사서, 사서 관리 1명,

한 2명 이상을 뒤야 됩니다.

- 그 다음에 기록물 관리실 공간 확보해야 된다.
- 이 세 가지를 지시로 내려와서 시행해야 된다. 안 하면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고발조치 되고 벌금도 물고 이렇게 페널티가 온다.
-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력 정원에 대한 필요안의 논의가 기타 안건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 관련해서 우리 인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웅선 과장〉

- 충남연구원 인사복지과장입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중반 정도에 국정원에서 연구원 정보보안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 방금 전해드린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 내부적으로 기록물 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문 전산 및 정보관 업무수행 전문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요.
- 당초에는 계약직으로 처음에 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내부적으로 논의 결과, 이런 업무를 시행하는데 과연 계약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제 전산 정보, 보안업무 같은 경우에는 책임성이라든가 전공 의식 또 관리계약능력을 요구하는 직무인데 계약직 행정으로 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구원의 정규 관리직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또 이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록물 관리자라든가 사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여야지 이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담당자로서 제가 채용공고를 실시해 보면 자격 조건이 높는데 처우가 낮으면 절대 적합한 인력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계속 재공고, 재공고 결국에는 채용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무기 계약직이라든가 계약직, 이런 것보다는 정규인력으로 채용하는 게 적절하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연구원의 문제를 이사회에서 한번 건의를 해 주심사 안건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 장〉

- 관련해서 배경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저희들 전산 보안에는 162명이, 이번에 전산 보안에 관리자가 딱 1명 있습니다.
- 정규직 1명이 전산 보안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갖다 체크하는 사항이나 시스템이나 체크하는 자격자가 일일이 없습니다.
-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우리 전문가가 어떻게 하더라도 딱 1명이 독점해서 이 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시스템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 전산 보안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력증원을 기해서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정규직이라도 정규직 일반직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 무기 계약직이 들어왔을 때는 신문사뿐만 아니라 원하는 업무상에 있어서도 이게 정규직이 잘못하거나 잘못을 지시하거나 명하거나 뭘 했을 경우에는 그걸 제거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 또 그럴 능력인 사람이 정규직 아니면 안 옵니다. 우리가 해 봐도 어떤 것을 뽑던 그런 자격이 있던 사람이 왔다 가도 공주이기 때문에 왔다가 한달 정도 근무하다 가버립니다.
- 온다 간다 말도 안 하고 가버려요. 안 와 버립니다.
- 지역적 근무 여건,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정규직이 아니고 무기 계약직으로 오게 되면 아까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 전산이 됐던 재무회계관리자격증이 됐든 이런 유능한 능력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건비에 대해서 무기계약제는 ok를 하는데 정규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도에서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골머리를 싸고 있거든요.
- 우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2명 정도는, 재무회계에서 2명 정도, 그다음에 전산보안업무도 2명 정도가 정규직이 돼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서로 순환제로 하면서 책임자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짬짜미가 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정원이 2명 정도가 분야에 있으면서 서로 체크하고 견제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나마 한 사람이 했을 때는 보고 안 하면 모릅니다. 밑에서 패스해 버리고요.
- 심지어 실장, 원장한테 보고 안 하고 바로 도 담당 부서로 패싱 해서 결제해 버리게 되면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력 충원 관련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사님들이 조금 고민해 주시고 나중에 정기 이사회 때 내년 3월에 도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 도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쉽게 말하면 필요성, 이런 것들 논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내년 3월에 이 안건에 대해서 공식 안건으로 열리기 전에, 이런 사정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사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종찬 이사〉

- 제가 이거를 포함해서 한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 경제학에서는 몸집이 가벼워야 위기가 왔을 때 조직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봐서 가능하면 조직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작게 아웃소싱해서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좋은 자리가 있으면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위기가 왔을 때 적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다 적어지거든요.
- 아웃소싱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 그런 측면에서 연구원의 핵심인 뭐냐 하면 연구를 위해서 이 인원을 연구진으로 충원을 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관리직으로 2명 하게 되어, 연구원직급으로 2명 채용 할 수 있는 인원을 관리직 4명 T/O로 잡아먹는다면 연구원의 어떤 핵심역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여러 가지 감사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해결을 아웃소싱에서 이렇게 해서 3개월 단위, 분기별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 장〉

- 그래서 아웃소싱을 저희도 검토했었습니다.
- 한 사람이 그만뒀버렸기 때문에 스톱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아웃소싱 문제를 생각했는데 아웃소싱을했을 때에 재무회계 관련된 모든 것이 감사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서, 개인 보장문제가 있습니다.
- 그다음 어느 업체, 어디로 할 것인가 문제하고 저희들이 토론을 좀 했습니다.
-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아니면 도에서 우리가 그걸 수행했을 논의됐을 때 도에서는 사실 인원이 있는데 아웃소싱 주면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연구원은 고민하고 했는데, 아웃소싱 문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전산 보안의 문제는 무기 계약직이 어렵다고 하면, 보안 문제, 개인정보, 통신 비밀법 같은 보장된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아웃소싱 문제는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가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실질적으로 혁신추진단에서 우리연구원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

-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더라도 혹시 또 아주 긴급한 질의가 있으시면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 우선 인력증원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예산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군, 도하고 관련된, 의회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우리 이사님들이 여기서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도에서 나오신 주무관님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종합토론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없으시지요?

〈원 장〉

- 아까 이사님 말씀 중에서 수요예측에서 수탁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고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출장도 계속 빈번하게 가고 있습니다.
-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 저희 수요예측에서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탁과제로 돈 많이 버니까 출연금 깎아가는 추세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수탁을 하지 말고 출연금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수탁을 전혀 하지 말고 출연금 안에서 하면 어떨까!하는 웃지 못할 생각도 했습니다.
- 또 우리 센터장님도 계십니다만 사업성에 있어서 도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정말 힘듭니다 센터, 이사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센터장님들이 현장에서 도 실무까지 같이 죽어라 일하고 있습니다.
- 공적은 도 실무에서 다 가져가고 욕 얻어먹는 건 센터로 다 와서 받고 그런 생각에서 센터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 장〉

- 예, 그러면 이제 종합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원장님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사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연구원에서는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잘 수합해서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0년, 참 이게 숫자가 2, 0, 2, 0 문제가 많았습니다.
 - 그러나 이제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이것으로 충남연구원 2020년도 제 2차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 회의록 작성 날인

- 충남연구원 2020 제2차 정기이사회(2020. 12. 23)의 진행 및 의결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서명이사, 감사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이를 증명 함.

의 장 김 수 민 (인)

이 사 박 종 찬 (인)

이 사 정 세 은

감 사 하 승 수 (인)